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 세계화·다문화 시대 함께 살아가기 -

여느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는 길이었다.
서툰 한국말로 내게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을 만났다.
컴퓨터를 켰다. 일본친구 유리코에게서 메일이 왔다.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다.
UN사무총장으로 반기문씨가 선출되었다고 한다. 놀라웠다.
언제부턴가 내 주위엔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세계화는 더 이상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세계 속의 한국'과 더불어 '한국 속의 세계'를 살고 있다.
나는 '세계시민'이다.

I. 전 문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에 참가한 우리 한국 청소년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청소년 운동 단체에 청소년의 역할 존중을 요구하는 1965년 12월 7일 유엔 총회의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에 제시된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를 집결하여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리우선언의 21번째 원칙을 지지하며,

2007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된 세계시민포럼을 통해 나와 학교, 지역,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며,

우리 한국 청소년은 '세계시민선언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려 함을 인지하고, 모든 과정은 이 목적들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자각하도록 하며,
1.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 세계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한국 청소년들의 토론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의식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계시민으로 여긴다. 세계시민은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를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II. 개념 및 우리의 입장

세계문제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거나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우리는 **가난**이 사회의 불공정한 경제제도 속에서 악순환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경제제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화란 공동체의 가치관을 토대로 발전과 쇄신을 반복하는 모든 생활방식을 일컫는다. 문화 간의 절대적인 비교는 있을 수 없다. 문화는 그 자체로 상대적인 의미가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해와 관용을 통해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에 관하여 타문화의 입장을 고려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이며 침해 불가능한 권리이다.

평화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 갈등이 최소화 되고 갈등이 생겨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공간 1)내에서 차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한 대우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꽃피울 기회조차 앗아간다.

환경이란 모든 생명체의 삶의 동반자이자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그 모든 생명체를 포괄한다.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체로서, 자신이 살며 누리는 환경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보전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자연은 우리의 애인이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인간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발전 양식이다.

III. 실천계획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상기 언급한 우리의 결의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가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1항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되어야할 대상이 아닌, 우리와 똑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길러주도록 한다.

우리는 성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제 2항 여성과 남성 모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가 자신만의 매력과 개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 3항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제 4항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세계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새롭게 창설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창으로 활용한다.

1) 역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가변성이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문화에 대해 가져야 할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제 5항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여긴다. 또한 다문화 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

제 6항 서로의 문화가 다를 때에는 다름을 인식하고, 서로의 문화의 뿌리를 찾고 어떻게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 7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한다.

제 8항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교류와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감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진다.

제 9항 캠페인 활동과 전시회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유도한다.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 10항 우리는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위한 제도 수립을 요구한다.

제 11항 모든 상품 생산자들은 장애인, 원손잡이, 아이들, 여성 등의 소수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제 12항 우리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바로 알며,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권리가 침해되는 사회의 현실에 저항한다. 즉, 소극적인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제 13항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세대인 우리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모금/실천운동 등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한다.

제 14항 언제나 우리보다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제 15항 우리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획일화된 동정 또는 이유 없는 편견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16항 환경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연관시킬 줄 알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제 17항 우리 청소년들은 “내 나무” 캠페인을 주도하여, 친환경적 태도와 생활방식을 함양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진전, 환경포럼, 천연기념물 탐사 등 환경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

제 18항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애용한다.

제 19항 환경을 살피고 지킨다는 실천사항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IV. 결 론

우리 청소년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청소년 또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접근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상기하며,

우리 각자가 소중한 세계시민임을 인식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개인 또한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가치와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당당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5일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참가자 일동

전체의장

최 완 혁

민족사관고등학교

부의장	장 광 석	등촌고등학교
의장단	김 혜 공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김 서 영	숙명여자고등학교
	박 한 별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신 지 혜	숙명여자고등학교
	이 동 진	금정고등학교
	편 영 미	상당고등학교
	한 송 이	백신고등학교
	홍 다 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참가학교

개성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군산여자고등학교
금정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논산고등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전노은고등학교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등촌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상당고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운남고등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청명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홍덕고등학교

중산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